

“아이들이 살고 싶은 마을 함께 만들어요”

아동친화도시 광주 동구, 35명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첫 회의 학교앞 버스 정류장·스터디 공간 등 10개 제안...구, 반영 추진

“학교 앞에도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주고, 어린이 전용 미술관도 지어주세요.” ‘아동친화도시’인 광주 동구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소소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동구는 최근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를 위촉해 운영에 들어갔다. 세계 어린이날(11월20일)을 맞아 위촉된 아동·청소년 위원들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며 ‘민주시민’으로 커가는 과정을 학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동·청소년위원회는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살고 싶은 마을을

직접 그리게 된다.

19일 동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역 내 17개 초·중학교에서 추천받은 35명의 아동·청소년들로 구성됐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따라 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해 구성된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은 2년의 임기(1회 연임 가능) 동안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을 설계한다.

지난 16일 광주시 동구청 3층 상형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아동·청소년들은 열린 토론과정을 거쳐 10여 개 정책을 제안했다.

초등학교생(4~6학년)과 중학생(1~3학

년) 각각 4개팀으로 구성된 모둠회의에서 제안된 주요 정책은 ▲학교 앞 버스정류장 설치 ▲포대 공간 및 무료 스터디 공간 확대 ▲주민들을 한마음으로 모이게 하는 축제 늘리기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제공 ▲학교 앞 비가림막(차양막) 설치 ▲문화향유 공간 및 기회 다양화 ▲학교 급식실 확충 등이다.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한 위원은 초등학교 기숙사 건립이라는 감격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동구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정책 중 학교 앞 정류장 설치, 포대 공간 설치 등은 담당부서와 함께 현장에 나가 살펴볼 계획이다. 그 외 정책도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아동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 조례상 정기회의는 연 2회로 규정하지만, 동구는 아

동·청소년 위원들의 일정에 따라 월 1회 이상 만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은 광주시 동구가 지난 5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면서 탄력을 받았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란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며, 아동의 의견을 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과 법, 프로그램과 예산편성 시 아동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세계 어린이날에 발맞춰 위촉된 이번 위원회가 아동의 참여권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아동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 19일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 중 수관연결 방송자세 부문 참가자들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인권위 “지자체 견학사업 비공무원 배제는 차별”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견학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공무원에게만 주고, 공무원 등 비공무원 직원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A시는 매년 국내 선진지 견학사업과 해외체험 연수사업을 하면서 대상을 공무원으로 제한했다.

A시는 “공무직 근로자 다수가 자체적으로 견학을 하는 관광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단체 협약에 따라 공무원 노조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견학사업에 공무직을 포함하면 중복성 예산 집행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체험 연수는 공무원 대부분이 업무보조, 현장근로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해 글로벌 인재양성과 선진행정 접목이 목적인 해외체험 연수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무직 근로자 중 공무직 대상 견학이나 부서 자체 견학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가 약 25%”라며 “중복성 예산 집행 우려도 다른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체험 연수에 대해서는 “공무직 근로자는 여러 부서에서 공무원과 함께 일하며 공무원이 맡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공무직 근로자들이 글로벌 인재로서 소양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시에 국내·외 견학 신청 대상에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을 제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최종 교섭 결렬...철도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

코레일 비상수송체제 돌입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최종 교섭 결렬에 따라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도 이날 오후 1000여 명의 노조원과 함께 광주시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 건너편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같은 날 광주시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까지 행진을 진행한다. 철도노조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18일 오후 2시 30분 본교섭 개최 후, 19일

정오까지 철도 노사 간 집중 교섭을 했으나 결국 교섭은 결렬됐다”면서 “예정대로 20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만일 정부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교섭의 문은 열어 놓겠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가 파업하면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30~70% 가량 감축 운행할 수밖에 없어 교통혼잡과 수출입업체 물류차

질이 우려된다.

한편 코레일(한국철도)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열차 안전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KTX는 평소 대비 운행률 68.9%를 유지하고 새마을호는 58.3%·무궁화호는 62.5%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화물열차는 내부 대체기관사를 투입해 평소 대비 31.0% 운행하며,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1 달뜨기 --:--
해질 17:24 달뜨기 13:39

차기운 바람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광주	맑음	2/10	보성	맑음	-1/10
목포	맑음	3/8	순천	맑음	1/12
여수	맑음	4/11	영광	맑음	0/8
나주	맑음	-1/10	진도	맑음	5/9
완도	맑음	4/10	전주	맑음	0/8
구례	맑음	0/11	군산	맑음	-1/8
강진	맑음	1/10	남원	맑음	-2/10
해남	맑음	1/10	흑산도	맑음	8/11
장성	맑음	0/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2.0	북~북동	0.5~1.5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5	북~북동	0.5~2.0
남해 앞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남해 앞바다(서)	북서~북	1.0~2.0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대서)	북~북동	1.5~2.5	북~북동	1.0~2.0

◇ 생활지수

☀️	관심
☀️	식중독
☀️	보통
☀️	자외선
☀️	좋음
☀️	미세먼지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0:37	07:28
12:42	20:21	
여수	08:32	02:26
	21:57	15:22

◇ 주간 날씨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	☀️	☀️	☀️	☀️	☀️	☀️
1/15	7/18	8/21	12/17	10/14	7/14	5/14

수능 이의신청 344건... '불수능' 작년보다 600건 줄어

지난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문·답에 대한 이의 제기 344건 접수됐다.

19일 수능 출제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4일~18일 총 34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불수능’ 여파로 이의신청이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해 991건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 중 시험운영에 대한 불만 등 민원을 제외한 순수 이의신청은 236건이었다. 총 91개 문항에 대한 이의가 있었다.

영역별로 보면 사회탐구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어 101건, 과학탐구

53건, 영어 37건, 수학 24건, 직업탐구 7건, 제2외국어·한문 3건, 한국어 2건 순이었다.

가장 많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문항은 국어 21번으로, 총 29건이 접수됐다. 고전가사 ‘월선헌신숙경가’와 권근의 ‘어촌기’ 가운데 10곳에 밑줄을 그어놓고 적절하지 않게 해석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사회탐구에서는 ‘생활과 윤리’ 과목 10번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았다. 분배의 정의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두 사상가를 제시하면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문항을 고르는 문제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해외여행 모기매개감염병 주의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전남에서 Dengue열과 치쿤구니야열 양성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 여행객에게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8월 지가열, 10월 치쿤구니야열, 11월 Dengue열 양성자가 차례로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증

가 추세를 보이며,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포털 자료 분석 결과 Dengue 바이러스는 159건에서 238건으로, 지카 바이러스는 3건에서 10건으로, 치쿤구니야 바이러스는 3건에서 15건으로 늘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